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

- 2009, 2010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

윤 경 화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I. 사업의 필요성

1. 가족의 현실과 공동체

가족은 삶을 영위하는 생활단위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공동체적 욕구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중요시 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강한 가족주의 성향을 가져왔으며, 가족주의는 가족들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한국의 사회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 오기도 하였다(신수진, 1998).

그러나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와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해 종전에 가족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사회기관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개별가정의 가사부담, 노인소외, 자녀양육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과거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갈등발생시 중재역할을 맡은 친족집단의 축소로 인한 친족 유대의 약화는 친족에 의한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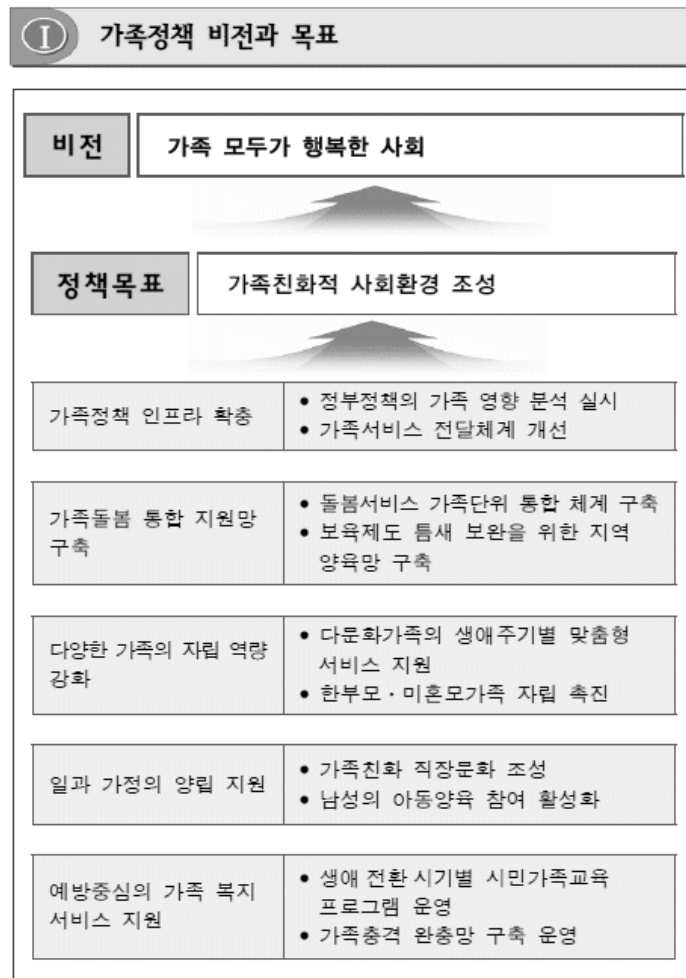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가족의 삶의 가치 지향이 혈연중심에서 지역 및 이웃중심의 가족관계로 확대된 다양하고 대안적인 가족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변화순, 1994). 이에 따라 오늘날 가족의 문제는 이웃,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적 삶의 형태를 통해서 서로 협동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류경희, 1999). 즉, 개별화된 가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족간의 상호유대를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내에서만 책임지던 많은 역할들을 이웃과 더불어 해결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가족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정책과 공동체

1) 가족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이슈가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자살, 이혼, 가출, 노숙자 등의 증가로 가족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지만 제대로 된 가족정책의 출범은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김승권, 2009).

현행 가족정책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정책목표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인프라 구축, 가족돌봄 통합 지원망 구축,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예방중심의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 등 5개 영역을 핵심 가족정책으로 삼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년 10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정책>

이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정책을 보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 보육제도 틈새 보완을 위한 지역양육망 구축,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등은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예방·

맞춤·통합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혜림, 2009).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공동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전달체계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3개소, 2006년 50개소, 2008년 83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93개에 이른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를 들고 있으며,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지역사회연계 등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결국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총량을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자원화를 도모하도록 한다(송혜림, 2009).

특히 1991년 이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조직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조직화의 유형은 크게 행정기관을 통한 조직화, 민간조직을 통한 조직화, 종교기관을 통한 조직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민간조직을 통한 조직화가 관주도보다도 효과적이지만, 재정이나 지속성에서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최재원, 1997, 송혜림 2006 재인용).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적 전달체계이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한 경우가 많아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송혜림, 2006).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거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은 민간단체로서의 높은 효과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긍정성이라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민간단체로서의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계함으로써 각각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의 좋은 밑거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공동체와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1.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생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함께 행동하며 다소 밀집되고 근접한 영역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 서약에 의해 공동의 삶을 살도록 서로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곽영조, 2004 재인용, 윤경화, 2007). 한편 우리말로 공동체를 정의하자면 '더불어 사는 삶과 그 터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터전'이란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실체화된 '공간', 즉 삶과 문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정규호, 1997). 이러한 공동체 개념을 종합 정리해 보면 가장 공통된 요소로 '지역성', '공통의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힐러리, 1955, 류경희, 1999 재인용). 특히 오늘날의 공동체는 지리적이나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집단적 공동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공동체 안의 공동체적 삶은 인간의 기본욕구로 시공을 초월하여 추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윤경화, 2007).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혈연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왔다. 품앗이, 계, 두레 등이 그것이다. 품앗이는 마을주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

는 것으로, 노동의 대가로 현물이나 화폐가 아니라, 받은 품에 대하여 품으로써 값은 일종의 호혜적인 노력을 나누는 방식이다. 계는 자연적인 재해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농계, 우계, 보안계, 동계, 상여계, 혼례계, 동갑계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두레는 개별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점에서 품앗이와 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즉, 마을의 16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인남자는 모두 의무로 가입되어 있었고 마을 전체 농지의 공동경작, 공동부조하였다.

이러한 품앗이, 계, 두레 등의 공동체적인 조직형태는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6. 25 전쟁을 겪은 후 산업화,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다양한 공동체- 선행연구

1) 대안가족, 공동체가족

최근 들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족학 영역 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공동체가족에 관한 연구로 대안가족을 연구한 정해은(1992)의 연구에 이어 박민선(1995)은 개인 및 가족들의 복합체를 공동체가족으로 정의하였고, 이어서 류경희(1999)의 경우 『한국의 공동체 가족에 관한 고찰』에서 공동체가족이라는 개념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생성된 가족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공동체가족 사례들>

비슷한 지역에 사는 몇몇 가족이 모여 가족원간의 관계와 이웃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녀 가족모임: 외동가족, 1986년 시작, 95년 당시 서울에만 30여 팀 - 좋은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1991년 40대 아버지 - 원이네와 민화네 공동주거 가족: 93년 두 가족이 한 아파트에서 공동가족으로 지냄 - 한울타리 가족모임: 93년도봉구 미아동에서 18가족 - 문춘화-일산 6가족모임: 93년 일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모임 - 녹색조직-과천 5가구의 가족공동체 생활: 95년 과천 원문동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을 함께하고자 하는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교실: 93년 부천 YMCA생협을 매개로 아버지 30명 - 공동육아 협동조합: 0~10세까지의 아동을 둔 30여 가구가 한 단 위로 500~600만 원씩 출자해 어린이집 만들. 현재 전국에 80여 곳이 있음 - 열린 사랑, 열린 어머니: 97년 안양 YMCA 전업주부 12명 가족 - 광명 아이사랑: 96년 광명 YMCA생협 전업주부 12명. - 좋은 아버지교실: 97년 안양 YMCA 아기스포츠단을 통한 아버 지 15명 - 좋은 엄마들의 모임: 97년 주부들이 육아정보를 나누는 모임 -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모임: 98년 품앗이 과외활동 실시 - 품앗이 과외: 초중학교 자녀를 둔 주부 3~7명씩, 일반과목/예체 능 지도 - 품앗이 공동육아: 97년부터 2,30대 주부들이 모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안양, 광명 YMCA 생협 등대모임
환경운동차원의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코가족모임: 96년 '지구를위한세계운동한국본부'의 가족모임
생태마을운동 차원의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 누리 공동체: 95년 경기도 안성군에서 최한실씨와 박의준 씨가 시작한 생태공동체. 한가족 5명과 비혈연 3명 등 8명이 한 가족으로 생활 - 농촌의 두레마을을 지향하는 가족들: 97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와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라는 마을에 허병섭 선생 내외와 권혁천 가족이 의기투합하여 만들, 99년 현대 20여 가족이 생명 농업 하고 있음

* 류경희(1999) 논문의 내용을 표로 재정리함

2) 공동주택, 지역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주거학 부문에서도 널리 연구되고 있다. 채혜원(2002)은 공동체 문화의 차원에서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역할을 탐색해 보고 그 동안 공동체 연구의 접근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이경희(2001)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례를 활동의 주체나 활동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즉, 활동주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주민/외부 비영리조직의 지원이 함께하는 활동, 주민/행정조직이 함께하는 활동, 주민/비영리조직/행정조직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나누고, 활동내용은 공간시설 만들기, 조직/프로그램 만들기, 공간/시설+조직/프로그램 만들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활동주체에 따라 주민, 비영리조직, 행정조직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각기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사례유형-활동주체와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구 분	공간시설 만들기	조직/프로그램 만들기	공간/시설+조직/프로그램 만들기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서울 용두동 꽃길 만들기	부산 금산마을 문화마을 만들기	관악 봉천 3동 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주민공간으로 만들기 미국 N-Street 코하우징
주민과 외부 비영리조직의 지원이 함께 하는 활동	서울 수유6동 극동아파트 녹색아파트 만들기	중계주공 아파트-녹색 아파트 만들기	녹번동 통학로 만들기
주민과 행정조직이 함께하는 활동	주민이 뽑은 구청사 건축계획안	전농동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조성
주민, 비영리조직, 행정조직이 함께하는 활동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양지공원	신린 7동 난초골 공동체	미국의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송학마을-친환경 마을 만들기

*출처 : 이경희(2001).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역할

3) 가족친화 마을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가족의 등장, 돌봄서비스의 분절성과 상업화 문제, 국가차원의 돌봄 시스템 구축 시도 본격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정책 일환이다. 가족친화마을이란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고, 그 가족이 겪는 생활의 문제와 요구를 마을 안에서 함께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사회지원시스템으로서의 마을'로 정의한다. 2009년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2009)에서는 가족친화마을로 부천 고강동, 부산 반송, 서울 성미산, 전북 장수 등 4개 마을을 분석함으로써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주체가 형성되어야 함, 돌봄과 생활지원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고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역할을 할 코디네이터 양성, 중장기적인 행정적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1)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하 "사)가건모"라 함)은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로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공동체의 회복, 품앗이의 확산,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원화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를 단체의 주요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사)가건모의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인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다문화 가정 가족행복놀이터’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는 가정의 자원화를 위한 사적인 가족관계망을 확산하여 사회적이고도 공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돌봄의 품앗이를 위한 단위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돌봄의 품앗이는 지역에 나눔문화, 돌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돌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생적 돌봄의 연대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개별가정의 자생력과 자립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송혜림, 2009).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사회 관계망의 형성은 공사영역의 호환을 통해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좋은 방안으로,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세대의 단순화,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등에 의한 개별가정의 약화된 돌봄 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지·보충·대체할 수 있다.

2)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은 2009, 2010년 2년차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사)가건모의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국가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민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운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우리 가정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국가에만 맡겨놓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 국가사회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이고도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운동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의 결과였다.

이렇게 국가와 시민 두 방향의 노력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나 정부의 정책도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사업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부활 또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들 중 지역화폐(또는 다자간 지역품앗이)와 품앗이 육아에 주목하였다. 두 사례는 돌봄노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의 품을 교환함으로써 가족간의 친목과 협력,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본 사업은 대전 한밭레츠의 다자간지역품앗이와 과천품앗이의 품앗이 육아 사례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품의 나눔을 통한 다정한 이웃가족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이 행복한 사회, 즉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품앗이 육아>

구 분	지역화폐(다자간 지역품앗이)	품앗이 육아
개념 및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품앗이: 품앗이, 두레, 계 등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공동체로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체화폐(지역화폐)를 통해 회원들이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 제도. 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물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품앗이 제도'라고도 함 (*출처: 한발레츠 리플렛) · 지역통화: 녹색달러, 타임달러, 아이즈, 델리달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영미권 국가에서만 1000여 지역 이상에서 사용. 지역통화 중 타임달러와 아이즈를 제외한 대부분은 레츠 (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김형용, 1999). 	<p>품앗이 육아는 엄마들이 스스로 만들고 꾸려가는 모임이다. 엄마들이 교사가 돼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 한 팀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는 게 보통이며, 놀이터, 각종 공공시설, 회원 집을 돌아가며 교육장소로 활용한다. 주로 놀이와 체험학습으로 이뤄지므로 보육시간은 하루 2~3시간 또는 5~6시간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보육비는 따로 없고 재료비로 5000원에서 1만 원 가량의 회비를 걷는다. 대부분 놀이 또는 공동육아의 프로그램을 많이 따르고 있으나 학습 위주의 모임도 있다.</p>
현황	<p>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하여 12개 단체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례: 대전한발레츠, 과천품앗이, 무지개교육마을, 송파품앗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형태의 품앗이 육아 : 동대문품앗이공동체, 과천품앗이, 무지개교육마을 등 - 인터넷을 통한 정보나눔을 통한 품앗이 육아: 일산동아리, 도래샘 등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를 통한 가치창출 - 공동체와의 연대감 - 경쟁과 소유로부터의 자유체험 - 자기능력발휘 및 자기존재감 체험 -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 <p>*출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돈(천경희, 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들의 능력도 발휘되고 보람이 있다. -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 갈등이 있더라도 잘 풀 수 있다. -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으며, 서로 돕고 양보하는 삶을 배운다. -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 성장, 발달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자녀와의 높은 유대감으로 정서적 만족감을 높인다.

Ⅲ. 사업의 내용

1. 사업 목표

1) 가정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 ▣ 품을 나눔으로써 가정과 가정 간, 가정과 지역사회 간의의 협력과 연대의 경험을 쌓음
- ▣ 공적 관계망을 확산함
- ▣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듦

2) 가정의 역량 강화

- ▣ 가정의 자생력, 자립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역량을 강화함
- ▣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함
- ▣ 가정을 대체하는 기능의 국가나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경감함

3)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 ▣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과 조직, 효율적 사용의 장을 마련함
-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조성함
- ▣ 가정간 연계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함

2. 세부 사업내용

1) 다정한 이웃팀 구성 및 운영

- ▣ 3개 지역
- ▣ 지역당 5개의 이웃팀
- ▣ 가정의 역량 강화, 돌봄의 분담 등 다양한 품 설정

2)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관리

- ▣ 인적자원 발굴 및 관리: 참여자, 자원봉사자 등
 - 홍보, 교육을 통한 참여자 모집
 - 코디네이터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참여자 발굴 및 관리
 -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자, 공급자, 전문가 발굴 및 관리
- ▣ 물적자원 발굴 및 관리
 - 국공립/시립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복지시설, 놀이터, 공용시설, 자연 등

3) 다정한 이웃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 ▣ 코디네이터 양성
 -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 코디네이터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코디네이터 모집 및 교육
 - 코디네이터 정례회의
- ▣ 다정한 이웃팀 참여자 모집 및 확대
 -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 다정한 이웃팀 리더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족캠프 프로그램 개발
- ▣ 정기적인 코디네이터 회의를 통한 조정 및 지원

3. 추진 일정

1) 1차년도(2009년): 지역별 다정한 이웃팀 조성 및 운영

- ▣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코디네이터 모집 및 교육
- ▣ 다정한 이웃팀 모집 및 운영

2) 2차년도(2010년): 다정한 이웃을 통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

- ▣ 다정한 이웃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코디네이터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족소모임 리더교육 프로그램 개발
- ▣ 건강한 마을 만들기 매뉴얼 형성
 -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 ▣ 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실시

IV. 추진 상황

1.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회 기	주 제	제 목	내 용
1회기	사업의 의의 및 장기적인 전망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 사업의 배경: 가족정책, 건강가정기본법 -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의 의의 - 사업의 목표 - 사업의 내용
2회기	사례1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형성 사례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 지역화폐의 개념 - 지역화폐의 운영방식 -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형성 사례
3회기	사례2 육아품앗이 운영 사례	과천품앗이와 품앗이 육아	- 품앗이 육아의 개념 - 품앗이 육아의 운영방식 - 공동육아 품앗이 사례
4회기	활동 매뉴얼 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활동가의 역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사업 - 가족품앗이 참여회원을 위한 가이드 - 성공한 품앗이 노하우

2. 코디네이터 모집 및 교육

1) 사업 공모 및 선정

- ▣ 가건모 지부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
- ▣ 선정기준은 사업에 대한 인지도, 유사사업경험 여부, 다정한 이웃팀 구성계획, 지부의 이용가능자원 등으로 함
- ▣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 선정위원은 가건모 공동대표로 함
- ▣ 군산지부, 여수지부, 시흥지부 등 3개 지부 선정

2) 코디네이터 모집

- ▣ 3개 지부에서 각 1인 모집
- ▣ 자격요건

- 품앗이, 공동체사업 운영에 지도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사회단체 실무경력 및 자원봉사활동 경력자
- 교육, 상담, 문화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사회복지, 가족관련 학과 졸업자

☐ 코디네이터 경력

구 분	연 령	경 령
여수 지부	39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요리 교육
군산 지부	41세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팀장 - 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자격
시흥 지부	39세	- 사)가건모 시흥지부 홍보팀장 - 청소년전문상담과정 수료 - 중학교 집단상담, 개인상담, 학습지도 상담 경력 - 가정폭력상담사, 성폭력상담사 자격

3) 코디네이터 교육

- ☐ 대상: 3개 지역 코디네이터 지원자 10여명
- ☐ 일시: 2009년 5월 31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장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7층 교육장
- ☐ 교육프로그램

회기	강사	소속	시간	내용
1회기	송혜림	울산대 교수 가건모 이사	2시간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2회기	박현숙	한발레츠 간사	2시간	사례 1: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3회기	오진화	과천품앗이 간사	2시간	사례 2: 과천품앗이와 품앗이육아
4회기	조성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2시간	활동가의 역할

3. 가족소모임 지원자 모집 및 교육

1) 모집을 위한 홍보

- ☐ 전체 홍보 리플렛 1,500부, 포스터 300부 제작 및 배포
- ☐ 슬로건: “이웃과 함께 하면 우리 가정이 춤을 춥니다”
- ☐ 센터 이용자 가족대상 홍보
 - 가족봉사단,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특히 부모교육), 아이돌보미 이용자
- ☐ 지역사회에 홍보
 - 가두홍보, 거리현수막 홍보
 - 지역신문 홍보, 지역사회복지관 홍보
 - 아파트 단지내 게시판 홍보
 - 생협, 독서모임, 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

☐ 인터넷 홍보

- 홈페이지, 육아품앗이 카페 홍보

2) 부모교육

지역	일시	장소	내용	인원
여수	7월 15일	여성문화 회관 소강당	오리엔테이션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5명
	7월 18일		가족관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13명
	7월 22일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	14명
	7월 25일		자존감을 높여주는 의사소통 배우기	15명
	7월 29일		문제해결과정/일치적 의사소통 배우기	15명
군산	7월 27일	군산시 건강가정지원 센터 1층 교육실	독서지도 방법	15명
	7월 27일		자녀대상 미술치료프로그램	13명
	7월 29일		실내놀이 활동	16명
	7월 29일		자녀대상 미술치료프로그램	13명
시흥	6월 26일	청소년 문화의 집	1화: MBTI 실시 및 가족별 성격유형 유추하기 “우리 아이 이해하기”	13명
	7월 22일		2화: MBTI 실시 및 가족별 성격유형 유추하기 “이렇게 도와주세요!!”	15명

3) 카페개설

☐ 가건모 카페: <http://cafe.daum.net/hfamily21/GOWq4>

☐ 군산지부: <http://cafe.daum.net/happy.vitamin>

4) 가족캠프

지역	일시	장소	내용	인원
여수	9월 12일	여주시 소라면 소라남초등학교	- 농장채소 수확 체험 - 5개 이웃팀	15명
	11월18일	패밀리 패스티벌	- 5개 이웃팀 참가	30명
군산	8월 22일	전주인터체인지 포도원	- 가족과 함께 포도 수확하여 함께 나눠 먹음 - 구성원들끼리 소개 - 레크레이션	30명
시흥	8월 14일	시흥갯골	-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갯벌축제 참여 - 각종 부스 활동 참여 - 다정한 이웃팀 각 구성원들간의 소개와 놀이	31명

3. 가족소모임 조성 및 운영

1) 가건모 여수 지부

☐ 4개 팀: 언니네, 육아모임, 농장, 희마와리

☐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중심이 됨

☐ 주 1회 활동

▶▶ 제 14 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녹색성장과 가족자원경영

명 칭	구성원	날 짜	장 소	활동내용
언니네	결혼이민자여성 5명	8월 6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처음으로 만나는 날. 지역사회연구소 5명과 함께 여수지역의 역사를 배워나가며 친목과 고민을 상담함
		8월 18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여수지역에 대해 공부. 에밀리와 자스민을 한국말을 잘해 다른 친구에서 통역
		8월 28일	드림스타트 소강당	지역사회연구소와의 일대일 만남 생활비를 어떻게 받고 쓰는지 이야기 나눔
		9월 8일	드림스타트 소강당	즐거운 간식시간 여수시에서 운영한 홈페이지 관련 이야기 나눔
		9월 15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필리핀 친구들의 어려움을 상담, 해결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10월 6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시민의 날 참가를 위한 계획 구상
		10월15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시민의 날 행사참여. 육아팁과 합류함
육아모임	결혼이민자여성 7명 * 자녀 6명	9월 17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어린이집 선택하는 법, 지켜야 할 일에 대한 정보 나눔, 일본에서의 어린이집 선택방법에 대해 베트남 친구들에게 이야기
		8월 6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같은 아파트에 거주. 일본과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구성, 평소에 왕래하고 음식도 해먹고 한국어 공부도 하는 모임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며 한국어 공부를 함
		8월 20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아이들에게 구연동화. 장난감으로 놀이지도
		9월 3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아이의 양육에 대해 의논
		10월 1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한국어공부 및 아이돌봄
		10월 8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함께 모여 아이돌보며 수다 모임
		10월15일	드림스타트 도서관	언니네 팀과 함께 시민의 날 행사 참여
농장팀	결혼이민자여성 4명	8월 1일	울촌면 가장리 농장	상추, 빨간 무, 파, 열무, 배추, 갓 심기, 김매기
		8월 22일		새싹 정리, 간식먹으며 서로의 생활나눔 시간을 가짐
		8월 29일		잡초뽑기, 무화과 따기
		9월 12일		밭에 퍼켓(딸기네, 얼큰이네, 연지네 등) 만들어 세움. 물주기 회원들이 사는 시내에서 30분 거리
		9월 19일		김매기, 거름주기
		9월 30일		갓, 상추, 무 솥아주기
		10월10일		갓 뽑아서 갓김치 담기
		10월17일		얼큰이네 무밭에서 무 뽑기
희마와리 (해바 라기)	결혼이민자 여성 8명 * 자녀 6명	7월 29일	청솔아파트 201동 107호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모임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고민을 나눔 독서지도법을 배우고 싶어함 소모임 후 카레 해먹음
		8월 3일	건강가정지원센터 소모임실	방학생활 중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계획표 만들 일본과 한국의 방학숙제 차이점을 이야기 종이접기 활동
		8월 17일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자녀학습 돌봐주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
		8월 31일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일기 쓰기 방법 지도, 구연동화, 독서지도법등 교육
		9월 14일	건강가정지원센터 놀이방	책을 읽고 독서하는 방법과 효과, 생활습관표 기록
		9월 21일	청솔 아파트 204동402호	가족신문 만들기
		10월16일	청솔 아파트 201동107호	자녀의 학습태도와 생활습관표를 통한 자녀지도 해보기

2) 가건모 군산 지부

▣ 주 1회 활동

▣ 교육소모임 2(해피바이러스, 은하수), 나들이소모임 1(개구쟁이), 단순돌봄 소모임 2(D라인 친구들, 일곱색깔 무지개) 등 5개 팀

▣ 자생적인 모임을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와 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명칭	구성원	날짜	장소	활동내용
D라인 친구들	엄마: 5명 (전업주부이며 자녀는 1명씩) 자녀: 5명	8월 5일	회원집	이유식을 하루씩 돌아가면서 만들어 서로 나누자 : 빵튀기 만들기과 놀이
		8월 11일	회원집	3가정만 모임 당근 이유식, 노래부르기, 놀아주기
		8월 19일	회원집	공주의상으로 사진찍기 계획(인터넷 쇼핑 예약, 사진관 예약) 닭고기 이유식
		8월 25일	사진관	10명의 아이들 단체사진 촬영
해피 바이러스	엄마: 7명 자녀: 8명	8월 3일	가건모	종이접기 꽃다발 만들기
		8월 10일	전북지부 2층 교육실	팝콘 나무 만들기
		8월 17일	회원집	장남감을 이용해서 그림그리기
		8월 24일	회원집	구연동화(**엄마 진행) 7월 부모교육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시간을 통해 배움
일곱색깔 무지개	엄마: 10명 (결혼이민자 여성) 자녀: 12	8월 4일	가건모 전북지부 육아실	언어치로서 방문하여 언어발달에 관한 상담이 진행됨
		8월 13일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눔
		8월 18일		풍선으로 놀이, 동화책 읽기, 아이돌보미 참여
		8월 27일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과 육아에 대한 정보 나눔
은하수	엄마: 4명 자녀 7명	8월 4일	회원집	동물모자 만들기 재료준비 : **엄마 동물모자 만들기 진행(**엄마) 동물모자 만들고 역할놀이 함
		8월 11일	회원집	단순돌봄 간식준비 : **엄마 산후조리하고 있는 **의 자녀 함께 돌봄
		8월 22일	회원집	동화책 준비 : **엄마 읽어주기 : **엄마 아이돌봐주기 : **엄마 결혼 전 유치원교사를 지낸 ** 회원이 동화책 읽어줌. ** 회원은 어린 나이의 자녀 돌봄
		8월 28일	회원집	책읽어주기 간식준비 : **엄마
개구쟁이	엄마: 4명 자녀: 5명	8월 7일	회원집	생일파티
		8월 14일	부안 대명콘도	엄마와 함께하는 물놀이 장소예약 : **엄마 간 식 : **엄마
		8월 22일	회원집	아빠와 함께하는 신체놀이
		8월 29일	롯데마트 놀이방	놀이방 방문

3) 가건모 시흥 지부

- ▣ 취업주부: 주말과 오후에 문화활동 위주로 운영
- ▣ 전업주부: 공동구매, 학습지원 위주로 운영
- ▣ 자생적인 모임과 연계하거나 코디네이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함

명 칭	구성원	날 짜	장 소	활동내용
해바라기	7명	7월 5일	안산 시민시장	김치 담그기(재료 사기) ***은 김치재료 구입하여 주고 품값으로 김치 얻어감
		7월 13일	지부 교육장	오두막 모임과 함께 함 구슬품으로 거울 만들기 만져라 양초만들기 진 행 : 코디네이터
		7월 30일	영화관	아이들과 영화관람 저학년 : 해리포터 고학년 : 차우 동반한 보호자 : 킹콩을 듣다
		8월 10일	지부 교육장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코디네이터 주도)
		8월 14일	갯골축제	가족나들이
		9월 3일	옥구공원	해바라기 모집 향후 계획 나눔 옥구공원 산책
		9월 9일	지부 교육장	모임 평가 시간. 회원 병문안 다녀옴
오두막	엄마: 6명 자녀: 8명	7월 11일	시화방조제	코디네이터 주선으로 야외자전거 나들이 주선. 중학생 자녀 2명을 인솔자로 해서 6명의 초등생 인솔하여 시화방조제 자전거 나들이
		7월 13일	지부 교육장	해바라기 모임과 함께함, 구슬품으로 거울 만들기, 만져라 양초만들기 진 행 : 코디네이터
		7월 22일	지부 교육장	방학중 아이들 여가 활용을 위한 지역의 저렴한 캠프 정보 나눔, 자녀 컴퓨터 습관에 대한 방안 나눔
		8월 5일	문화의 집	8월 나들이, 갯골축제 참여에 대한 계획 가족 전체행사를 가지기 위해 문화의집 실무자의 도움으로 가족 일일행사 진행계획 세움
		8월 14일	갯골축제	아이들과 함께 참여 아이들과 부스 등에서 활동
		8월 22일	갯별행사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캠프 참여 해바라기 모임과 함께 함
		9월 1일	헤이리 마을	자녀들과 나들이
		9월 16일	지부	자체평가회 계 획 : 영화관람, 박물관 관람
조약돌	5명	8월 14일	갯골축제	가족나들이
		8월 27일	지부 교육장	학교 부적응 자녀에 대한 고민나누기
		9월 15일	지부 교육장	***씨가 초등학교 학생상당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겪었던 사례를 청소년 이해 차원에서 설명해줌 상급학교 진학관련 정보 나눔
느티 나무	6명	8월 14일	갯골축제	가족나들이
		9월 18일	가건모 교육장	인근중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나눔 소모임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나눔 풍선아트 배움
에버 로즈	6명	8월 14일	갯골축제	가족나들이
		9월 4일	가건모 교육장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양육시 고충 나눔 소모임 계획 나눔

4. 코디네이터 회의를 통한 활동 지원

- ▣ 목 적 : 각 지부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활동 조정, 대안 모색
- ▣ 횟 수 : 월 1회 코디네이터 회의를 통해
- ▣ 구성원 : 연구위원 1~2인, 사무국 1~2인, 지역 코디네이터 3인 등 5인 내외
- ▣ 코디네이터 회의 일지
 - 1차(06월 10일) : 관련 업무 확인, 인터넷 카페 개설, 홍보, 부모교육 등
 - 2차(07월 02일) : 지부별 진행과정 공유, 다정한 이웃팀 조성, 가족캠프
 - 3차(08월 24일) : 지부별 다정한 이웃팀 운영상황 공유
 - 4차(10월 09일) : 지부별 다정한 이웃팀 운영상황 보고, 소모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논의
- ▣ 논의내용
 - 코디네이터의 개입 정도의 문제
 - 자생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의 내용
 - 소모임간의 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한 공동모임의 필요
 - 다문화가정의 경우 리더가 필요함. 자발적인 리더가 생기기 어려워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 및 활용이 요청됨

V. 사업 결과

1. 다정한 이웃팀 구성 및 운영

지역	팀	다정한 이웃팀 구성 및 운영현황					연계자원	
		명칭	인원	형성동기	활동내용	횟수		장소
여수지부	4	언니네	5명	지역사회기관과 연결하여 지역사회 봉사자 5인과 필리핀 결혼이민자 여성 5인으로 여수지역에 대한 공부 를 하기 위해 구성	지역사회에 대한 공부 구성원들 생활에 대한 상담	주 1회	드림스타트 도서관	지역사회연구소-프로그램 제공 드림스타트 도서관-장소제공
		육아모임	엄마 7명 자녀 6명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본,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육아 를 위해 구성	어린이집 선택 아이돌봄:구연동화, 놀이지도 음식 해먹기 한국어공부	주 1회	드림스타트 도서관	드림스타트 도서관-장소제공 프로그램 일부 제공
		농장팀	7명	함께 주말농장 을 운영하기 위해 구성	씨앗심기 김매기, 물주기 간식 나눠먹기	월 2회	농장	주말농장- 장소제공
		회화마리	엄마 8명 자녀 6명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들로, 자녀 교육 을 위해 구성	자녀 학습에 대한 고민 나눔 독서지도법, 방학중 생활습관 지도, 방학숙제, 독서지도 등 나눔	주 1회	회원집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장소제공, 프로그램 일부 제공
군산지부	5	D라인친구들	엄마 5명 자녀 5명	유아를 가진 엄마들의 친목 및 자녀들의 나들이 를 위해 구성	이유식 만들어 나누기 아이돌봄 단체사진 촬영	주 1회	회원집	사진관
		해피바이러스	엄마 7명 자녀 8명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의 친교, 교육 을 위해 구성. 부모교육이 계기가 됨	종이접기 팝콘나무만들기 장남감 이용해 그림 그리기, 구연동화	주 1회	회원집 또는 가건모 군산지부 교육실	프로그램은 부모교육을 통해 지원됨 군산지부-장소제공
		일곱색깔무지개	엄마 10명 자녀 12명	한국어수업을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는 수업받기가 힘들어서 돌아가면서 육아 돌봄품앗이 를 하기 위해 구성	언어발달 상담 풍선놀이 동화책읽기 육아정보 나눔	주 1회	가건모 군산지부 육아실	언어치료사 아이돌봄비-돌봄지원 군산지부-장소 제공
		은하수	엄마 4명 자녀 7명	자녀돌봄 및 교육 을 위해 구성.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진행	동물모자만들기 동화책읽기 자녀돌봄, 간식주기	주 1회	회원집	
		개구쟁이	엄마 4명 자녀 5명	자녀돌봄 을 위해 구성	생일파티, 놀이활동 아빠와 함께 놀기	주 1회	회원집 또는 야외	
시흥지부	5	해바라기	엄마 7명 자녀 8명	자녀교육 및 생활나눔 을 위해 구성	김치담그기 구슬폼으로 거울만들기 영화관람, 공원산책 발도르프 인형만들기	주 1회	시장, 영화관 지부 교육장	시흥지부-장소제공 오두막팀과 교류
		오두막	엄마 6명 자녀 8명	평소에 잘 알던 주부들로 자녀교육 및 문화활동 을 위해 구성	야외 나들이 구슬폼으로 거울만들기 지역캠프정보 나누기 컴퓨터 습관지도를 위한 상담 자체평가	주 1회	야외, 지부 교육장	중학생 자녀프로그램진행 해바라기팀과 교류 시흥지부-장소제공 문화의집 프로그램 제공
		조약돌	5명	구성원 중 한 명이 초등학교 학생 상담자로 있으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나눔 을 위해 구성. 가족축제가 계기가 됨	학교부적응 자녀에 대한 고민 나누기 진학관련 정보 나누기	월 2회	지부 교육장	시흥지부-장소 제공 센터-프로그램 제공
		느티나무	6명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녀교육 문제 에 대한 정보나눔 을 위해 구성. 가족축제가 계기가 됨	학교폭력 대처방안 고민 상담 풍선아트 계획세우기	월 1회	지부 교육장	시흥지부-자소 제공 센터- 프로그램제공
		에버로즈	6명	맞벌이 주부로서 자녀양육시 고충 을 나누기 위해 구성	자녀양육시 고충 상담 계획세우기	월 1회	지부 교육장	시흥지부-장소 제공 센터- 프로그램 제공

*진한 글씨는 나눔 품을 따로 표시한 것임

2. 다정한 이웃팀 활동 분석

1) 활동지역 : 전남 여수, 전북 군산, 경기 시흥 등 3곳

2) 다정한 이웃팀 전체 수 : 지역당 4, 5개 총 14개 다정한 이웃팀 구성

3) 구성원 분석

▣ 인원

- 총 인원 엄마 87명, 자녀 65명
- 어른을 중심으로 보면 팀별로 4~10명, 자녀까지 포함하면 편차가 더 큼
- 아빠의 참여가 현저히 적으나, 가족캠프시 일부가 참여함

▣ 구성원 분석

- 모두 자녀가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됨

구 분	엄 마		엄마와 자녀	
	일 반	결혼이주여성	일 반	결혼이민여성
팀	4	1	6	3
	5		9	

4) 형성동기 분석

- ▣ 대부분이 자녀돌봄 또는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나눔, 문화생활 나눔 등을 목적으로 하였고, 여수의 언니네팀의 경우 지역기관과의 협조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부모임을 만들

구 분	자녀돌봄 또는 교육	공부모임	체험, 일손나눔
팀	12	1	1

5) 모임횟수 분석

- ▣ 대부분의 주 1회 모였으며, 매일 품을 나누는 활동은 없었음

구분	주 1회	월 2회	월 1회
팀	9	2	3

6) 모임장소 분석

- ▣ 대체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기타 지원기관의 장소를 이용하거나 지역에 있는 영화관, 공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 구성원간의 관계가 돈독한 경우에 회원집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구 분	회원집	회원집+지역기관	지역 기관	지역기관+야외	야외
팀	3	2	6	2	1

7) 연계자원 분석

- ▣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건모 지부라고 표기하더라도 해당 지부가 대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프로그램 또는 장소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음

- ▣ 특히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육아돌봄 품을 함께 나누는 경우가 있음
- ▣ 지역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음
- ▣ 다른 이웃팀과의 교류경험은 눈여겨볼 만함

구 분	건강기정지원센터	가건모 지부	다른 기관	기 타
장 소	1	7	2	2
프로그램	2	3	3	1
기 타	1(아이돌보미)			이웃팀 간의 교류

*중복한 자원이 있을 경우 중복해서 기산함

8) 품의 내용 분석

구 분	자녀돌봄	자녀교육	자녀친교 나들이, 문화생활 등	학습	체험 생활나눔
이웃팀	육아모임 D라인 일곱빛깔 은하수 개구쟁이	희와마리 은하수 해바라기 오두막 해피바이러스	D라인 오두막 조약돌 느티나무 에버로즈 해피바이러스	언니네 일곱빛깔	농장 해바라기
내 용	이유식 나누기	엄마가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진행	영화보기 사진찍기	지역사회, 한국어에 대한 공부모임	김치담그기 농사짓기

Ⅵ. 사업의 의의 및 과제

1. 사업의 의의

1) 현대사회의 가족의 현실에 부응함

본 사업은 우리 사회의 개별가정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자녀양육, 노인돌봄, 가사부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가정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개별가정 자체도 스스로 자생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체에 기반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가족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장할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정한 이웃을 만듦으로써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본 사업은 우리 사회 개별가정이 놓인 현실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2) 품앗이를 통한 공동체 형성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사업은 개별가정들이 모여 보유하고 있는 품을 서로 나눔으로써 가정과 가정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러한 가정간 연계가 확대, 발전하여 지역사회로 확대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류와 협력관계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사업의 결과 자녀돌봄 또는 자녀교육이 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 노인돌봄, 구성원들간의 문화생활나눔 등 다양한 품을 나누는 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공동체 형성의 방안 중 하나로 품앗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의 자원(재주)을 지니고 있다. 고도의 상품경제사회에서 화폐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자원을 교환할 수 없지만 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자원을 교환할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그런 점에서 품앗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정과 가정 간의 활발한 교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자생능력 제고, 지역공동체의 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동가로서의 코디네이터 양성

공동체는 제도로서 주어진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동가의 양성이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 본 사업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활동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다정한 이웃팀 형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코디네이터 회의를 정례화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망,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학습, 타지역 활동가와의 연대 등 활동가로서 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형성, 발달에 기여한다. 본 사업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자생적인 가족소모임 또는 코디네이터의 개입에 의한 가족소모임의 형성 및 운영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 관련행사 등이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2.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자발성

품앗이를 통한 공동체 형성은 자발성이 기초가 된다. 본 사업에서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스스로 모임을 꾸려가기에는 역부족인 팀들도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코디네이터가 매 모임마다 참석하거나 모임의 내용을 만들어가거나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이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살리는 데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또한 이미 품을 나누고 있는 팀의 경우 어떤 지원이 팀의 활동을 활성화하는지를 그 방안을 내오는 것도 중요하다.

2) 제도적 지원

공동체 형성을 통한 개별가정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형성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센터나 지부의 부모교육이나 자녀교육 프로그램, 지역기관의 프로그램 제공, 장소 제공, 이웃팀 간의 공동모임, 아이돌보미의 활용, 가족캠프,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지원방식을 시도해보았다.

앞으로는 각 지원방식이 이웃팀의 운영에 각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사회마다 지원가능한 자원을 물

색하고 조직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코디네이터 활동매뉴얼 구체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적 자원이다. 특히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결정적이다.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디네이터에 대해 사업의 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일반론은 교육되었지만,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활동지침면에서 볼 때 아주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년차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디네이터의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승권(2009). 한국 가족정책의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2001).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극복. 대한가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 김형용(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 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경희 · 김순옥(1999). 한국의 공동체가족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 박용남 역(2003). 레즈. 도서출판 이후(조너선 크롤 지음).
- 변화순(1994). 공동체적 삶을 향한 가족. 열린사회와 가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 최윤정(2004). 가족정책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9).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송혜림(2009).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 송혜림(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가능성-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한국사회연구회(2006).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윤경화(2006). 대안초등학교 학부모의 사회적 관심, 공동체의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서울불교 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1).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역할- 공동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돌아보며.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2009). 행복한 두루마을.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10주년 자료집.
- 채혜원(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 과천품앗이 홈페이지.
- 한발레츠 홈페이지.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 - 2009, 2010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

김 선 미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 글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과 여성부가 두 해에 걸쳐 공동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에 관한 일종의 실천보고서로서, 개별 가족의 한계를 넘어 서로에게 자원이 되는 가정의 잠재력 실현과, 더 나아가 이웃이 된 가정들이 토대가 된 건강한 마을만들기까지 시도하는 광범위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1단계 목표인 다정한 이웃만들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으로서 대략 이 글은 이 일차적인 목표에 다가가는 사업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앞부분을 통하여 그 간 나타났던 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이나 또 사업의 토대로 삼고자 모색해 본 본으로서의 지역화페나 육아품앗이에 대한 소개를 볼 때, 그리고 글의 뒷부분에서 세 지부의 열 네 사례로부터 추출한 방대한량의 기술과 분석 자료를 볼 때, 연구자는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면서 다양한 고민들과 깊은 헌신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연구자가 가장 깊숙이 공감하는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조직하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적 전달체계이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한 경우가 많아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을 가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토론자가 글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주의 깊게 살펴본 부분도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관련성 그리고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먼저, 세 개의 지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면서 실천한 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제시한 연구자의 노력에 독자로서 감사를 드리며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굳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주로 글의 순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 ☞ 선행연구를 통해 본 다양한 공동체의 사례로부터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러한 공동체의 노력들 가운데에서 이 프로젝트가 계승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그러한 공동체들의 시행착오로부터 배워 피드백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결 짓는 언급이 필요함.
- ☞ ‘지역 화폐’와 ‘품앗이 육아’ 사례를 토대로 삼아 사업을 구상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례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차용했는지 소개할 필요가 있다. 각 사례는 탄생한 자리와 맥락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맥락까지 차용한 것인지 어떤 별개의 요소만을 차용했는지 궁금함. 특히 지역화폐 부분은 이 글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 활용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더함.
- ☞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는 돌봄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가정의 자원화라는 이념위에서 자생적 돌봄의 연대문화를 통해 개별 가정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 이 사업의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아직 과정 중에 있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수정 해 가야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 또한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관계망의 형성에 기초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 - 이 발표문으로 보아 아직 이 사업은 건강한 마을만들기의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2010년에 건강한 마을만들기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됨), 다정한 이웃만들기 과정에 있음 - 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 예를 들면 이러한 본보기 사례가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혹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더 확산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환원될 수 있을까 - 에 대한 전망도 내어 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
- ☞ ‘정부의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의 균형’이라는 훌륭한 기준을 따르고자 한 이 사업이 실천 과정에서 과연 어떤 식의 공적 지원을 받았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그 공적 지원은 어떻게 얽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그 평가가 필요함. 이로부터 자발성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 또 섬세한 공적 지원은 어떤 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가 규명될 것임. 특히 이 양자가 얽히는 방식이 어느 정도 균형적인가 하는 측면은 여러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제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사례의 가정들이 이웃을 구성해 가는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소개할 필요가 있음. 연계자원이 나 품의 내용은 각 사례별로 맥락을 가지고 소개하면 다른 팀들이 활용하기에 도움이 될 듯함. 전체적으로 이웃만들기 사례에 대한 기술과 분석이 다소 양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향후 다른 경우에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그려줄 필요성이 있음.
- ☞ 사업의 실천면에서 볼 때, 여수시지부의 경우, 다문화가정으로만 이웃을 구성했는지 궁금함. 네 개의 팀의 특성은 무엇인지도 궁금함. 또한 다문화가정을 한국사회로의 통합하도록 지향하는 이웃만들기라면, 다문화가정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일반 한국가정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그렇지 않으면 논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발적인 리더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고 코디네이터가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함. 그렇다면 사업의 본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음.

- ☞ 그리고 지부별로 사업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 이 때, 지부별 이 사업의 책임자 혹은 코디네이터의 체험이나 해석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향후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효과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직면해보기 위해 열 네 개의 사례를 특정한 핵심적 기준 - 전술한 것처럼, 연계기관과의 상호작용, 코디네이터의 개입과 점진적 후퇴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발성의 촉발과정, 이웃 간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 변화 그리고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성의 산출, 이웃 만들기의 어려움과 과제 등 - 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